

사설

스스로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어느 날 식사에 초대받아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풍경을 보게 된다. 초대받고 온 사람들이 서로 뒷자리를 차지하려고 안달인 것을.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에게서든지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뒷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 올 경우, 너를 초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부끄러워 말서로 가게 되리라. 초청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 올라와 앉으라고 할 것이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라는 말을 했다. 이런 현상은 성서가 쓰여진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구절의 뜻은 인간의 교만함을 우회적으로 꾸짖은 것이다. 즉, 매사에 겸손하라는 뜻이다.

인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서로들 자기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남을 곧잘 무시하는 버릇이 있다. 무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을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참으로 잔인하지 않은가. 설령 겉으로는 겸손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뺨보다도 더 교활한 짓들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증오와 비난이 연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지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나 아류들을 추켜세워도 그것을 역면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면서 느끼는 것들이지 않은가. 현대는 매우 다양한 사회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거의 없다. 때문에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니 스스로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니, 무슨 전문직이니 해 봤자. 그런데도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조금만 비위에 거슬러도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상모략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다.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해꼬지 할리는 만무하다. 설령 해꼬지 한다면 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존경할 수도 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극단적인 해를 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능하면 겸손해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선을 자기 자신의 심장에 저장해야 한다. 인생은 실로 덧없다.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언제 저 아이가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느 새 자신의 것까지 먹여치우는 성장한 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런 아이가 어느 듯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된다. 그런 후 어느 날 홀로 간다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인간은 물리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는 더더욱 그렇다. 그저 모두 잠시일 뿐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자연에 묻힌 뒤에도 세상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잘도 돌아간다. 때문에 자기 자신이 헛살을 볼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자. 모두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향기만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꽃밭에서 피어나는 향기 말이다.

이번에는 서양근세 철학사를 통틀어 최고위관직에 올랐던 인물, 자기의 은인(恩人)을 밭에 따라 가차 없이 처단한 다음 스스로 범의 울가미에 걸려 감옥에 갇힌 철학자의 이야기이다. 그 주인공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외쳤던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1561년~1626년)이다.

베이컨은 궁정대신과 그의 둘째 부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 니콜라스 베이컨은 옥새상서와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옥새상서(玉璽尙書)란 국왕의 인장(도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국왕의 명령을 공식화하는 책임을 맡은 자리이다. 국왕의 명령이 공식화되려면, 옥새상서의 승인을 거쳐 옥새를 공문서에 찍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옥새상서는 국왕의 최측근 관직으로서, 국왕의 뜻과 명령을 하늘처럼 받들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책이다. 더욱이 베이컨의 이모부 윌리엄 세실(국무장관, 재무장관 역임) 역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베이컨은 어려서부터 매우 조숙하고 지식욕이 왕성하였다. 12세 때 형과 함께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베이컨은 이 시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만난다. 당시 여왕은 베이컨의 남다른 지적

출세의 달인-베이컨(1)

(知的)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젊은 옥새상서'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이 대학을 자퇴하고 만다. 그곳에서 중세 스킨라 철학(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인 사유로써 논증하고 이해하려 했던 철학)을 공부하도록 강요받은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그 후, 영국 대사관의 수행원 자격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르며 문학과 과학을 공부하였다. 이 동안 아버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유산은 이미 큰어머니에게서 난 세 자녀와 손위 형들에게 거의 상속되어 버렸고, 막내인 그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다. 그런 처지에 사치스런 생활에 길들여진 베이컨은 낭비벽이 심하여 많은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늘

빛에 시달려야 했다. 공무원으로 출세해 볼까 하고, 당시 수상(首相)인 큰아버지를 비롯하여 가까운 친척들에게 취직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냉담하기만 하였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스스로 올라가야만 했다. 변호사가 되어 출세하기로 결심한 베이컨은 그레이즈 법률 학원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21세 때는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2년 후에는 젊은 나이로 타운톤 시(서부 잉글랜드 서머셋 주의 한 도시)의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그 후 선거 때마다 승리하였다. 비록 웅변술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설은 간결하고도 발랄했으며, 정밀하고도 장중하였

다. 그리하여 청중들은 그의 연설이 일찍 끝나버리거나 앓을까 하고 마음을 졸였다고 한다.

한편, 베이컨의 출세욕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마키아벨리 증적인 사고방식이었다. 20세 때 콘월 주(영국 잉글랜드 서남부에 있는 주) 의원직을 승계하여 의욕적으로 의회 활동을 펼치던 베이컨에게 하나의 기회가 왔다. 이 무렵 검사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부(큰아버지)와 종형(사촌형)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때 경쟁자로 떠오른 인물은 공교롭게도 이종사촌 동생이었다. 즉, 이모부 윌리엄 세실의 아들 이었던 것이다. 이모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애인이라고까지 소문이 난 2대 에식스 남작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에식스 남작은 베이컨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베이컨에게 선물했고, 베이컨은 이를 팔아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

아파트 화재 시,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를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다치고 42명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에는 인천과 서울 노원구 등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과 9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또는 구조요청 방법은 무엇일까?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위기 상황에서 본

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사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 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

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 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

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이뤄져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음력 5월 21일)

<p>48년생 그만하자 만우 고분고분 따가자 60년생 이런 호사야 없다. 출추고 노래하자 72년생 섭섭함도 원망도 바람에 실어 버려 84년생 빈손으로 할류 열심히 해야 한다 96년생 형만 한 아우 없다. 지혜를 빌려오자</p>	<p>49년생 비어있던 가슴에 살림이 다카진다 61년생 후회는 빠르게 미련 남기지 마라 73년생 크고 화려한 강투 날개가 달려진다 85년생 피하고 싶은 상황 경변수해하자 97년생 허투루 보낸 시간 반성문을 써보자</p>	<p>50년생 작은 생의 표시 고마움을 담아내자 62년생 예상 못한 도움이 급한 불을 꺼준다 74년생 미움이면 해사람으로 보여진다 86년생 조직의 핵심 계급장이 달려진다 98년생 선택을 잘하는 나무꾼이 되어보자</p>
<p>51년생 늘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져보자 63년생 고생한 보람 자랑으로 남겨진다 75년생 흔들리는 초상에 중심을 잡아내자 87년생 낙낙한 차이로 경쟁에서 이겨내자 99년생 송곳같은 지적을 아프게 받아내자</p>	<p>52년생 남자는 행복을 미움껏 누리보자 64년생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리를 해보자 76년생 산 넘어 신이아도 매 순간 도전하자 88년생 부끄럽지 않은 차선을 가져오자 00년생 차트는 유명세 이름값이 비싸진다</p>	<p>53년생 이만큼 잘한다. 무용담이 펼쳐진다 65년생 재밌히고 달콤한 반전에 성공한다 77년생 풍성한 수확 곳간이 차고 넘쳐진다 89년생 연필 대신 호미뎀을 흘려야 한다 01년생 아름다운 만남 청춘꽃을 피워내자</p>
<p>54년생 가르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66년생 애정 표현은 때와 시기를 알아내자 78년생 있을 수 없는 행은 맨내가 불러진다 90년생 결투된 방식에 변화를 가져보자 02년생 스쳐가는 인연 운명임을 알아내자</p>	<p>55년생 불꽃은 손님을 정성으로 맞이하자 67년생 여자를 위한 화생귀감이 되어보자 79년생 그럴 수 있도록 속성함을 참아내자 91년생 단출한 건치로 기쁨을 대신하자 03년생 우등생 답안지로 시험을 마쳐보자</p>	<p>56년생 자식처럼 꾸리는 제안을 들어보자 68년생 머리카락 보일까 뒤로 숨여보자 80년생 장담했던 결과 초라함만 남겨진다 92년생 의미가 담겨있는 선물을 받아보자 04년생 아차하는 방심 나무에서 떨어진다</p>
<p>57년생 승부는 거칠게 해야 한다 69년생 성급한 축하 깃장국물 마셔야 한다 81년생 걱정은 그만 인심으로 지켜내자 93년생 이별 인사는 냉정하게 해야 한다 05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이라 단정하자</p>	<p>58년생 고집을 꺾어야 쉽게 편하게 간다 70년생 당당한 이익보다 신뢰를 쌓아보자 82년생 격자였던 기계부 낙낙히 채워진다 94년생 예상 못한 변수가 길 걸음을 막아낸다 06년생 애정 어린 조언에 고개를 숙여보자</p>	<p>47년생 작품인 승배로 박수를 받아내자 59년생 큰 걱정 내려지는 대답을 들어보자 71년생 앞줄함의 극치 낭비를 막아내자 83년생 예쁜 것 하려다가 핀잔이 먼저 온다 95년생 시행착오는 좋은 스승이 되어준다</p>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